

#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재난 때는 이렇게 하자



백화점, 터미널, 호텔, 복합 오피스 빌딩, 지하철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이 무력 테러의 표적이 되기 쉽다. 재난을 당했을 때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.

### 테러 등으로 재난 사고를 처음 발견했을 때

- 상황 전파: 건물 내부의 사람들에게 긴급히 재난 발생 사실을 알린다.
- 신고: 119나 112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.

### 지상으로의 대피

- 지상으로 대피가 우선이다.
- 비상 계단을 내려갈 때는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인지 확인하고 내려간다.(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는다.)

### 지상에 도착했을 때

- 건물 붕괴의 위험에 대비 견고한 외벽을 따라 대피한다.
- 지하 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지상으로 대피한다.
- 건물 붕괴 후 폭풍 등을 감안 건물 높이 2배 이상의 거리 밖으로 벗어난다.

### 지상으로 대피가 어려우면

- 내려가는 계단이 막혔을 때는 옥상으로 탈출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.
- 옥상으로 가는 길도 막혔으면 창가 등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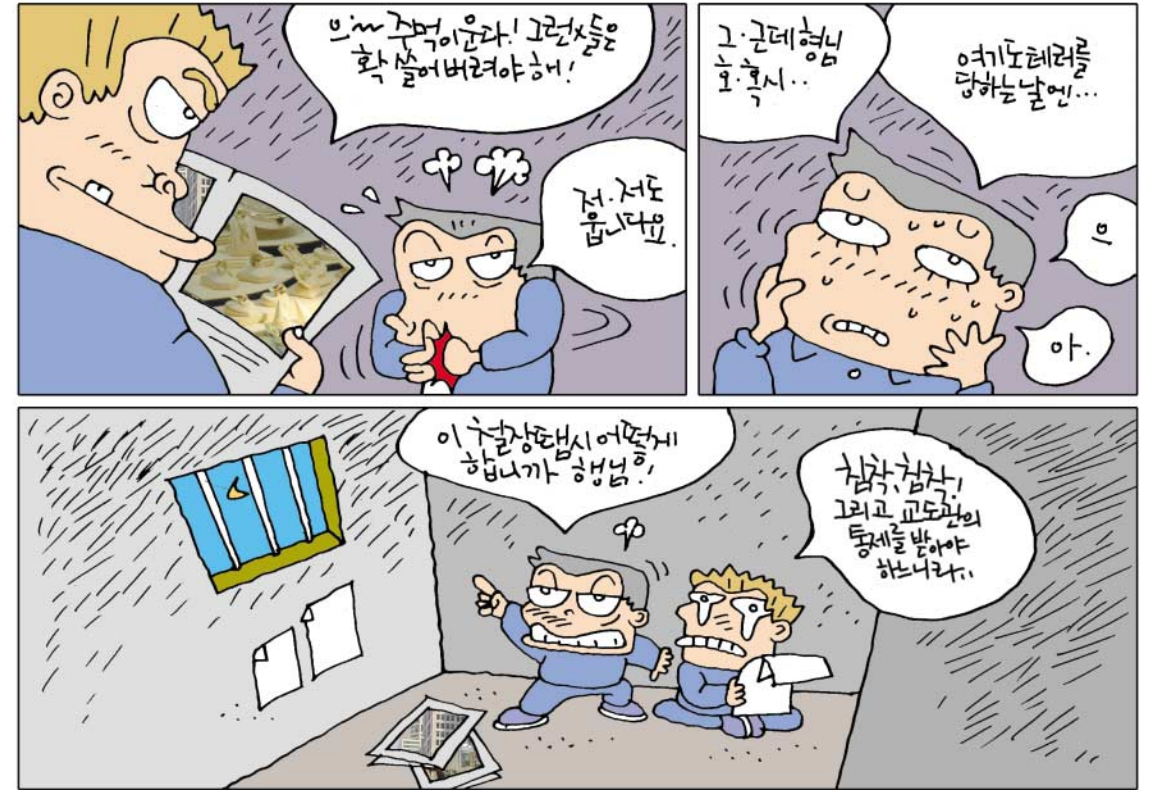
### 대피시 유의 사항

- 돈이나 귀중품에 연연해 하지 말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.





- 개인 행동은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하며,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있으면 보호하여 대피한다.
-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작동을 멈추게 되므로 비상 계단 등을 이용한다.
- 다급하다 하여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내리지 않는다.
- 이동할 때는 벽돌이나 유리 등의 파편을 조심한다.
- 사무실 밖에서 '불이야!'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문을 확 열어서는 안 되며, 몸을 뒤로 숨기고 천천히 열어야 한다.
- 전기 화재는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물을 쓰지 않는다.
-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문을 열면 안 된다. 이럴 때에는 문틈을 막고 주변에 물을 뿌린 다음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.
- 복도를 빠져나갈 때는 유독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뛰지 말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.



- 가스 유출시 천장부터 차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어서 대피한다.(바닥에서 20cm 정도까지 공기가 남아 있음)
- 옷에 불이 붙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과 담요 등으로 감싸거나 바닥에 뒹굴면서 손으로 두들겨 끈다.
- 유언비어나 공포 분위기 조성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.

**전동차(지하철) 내의 화재발생시 대처요령**

- 노약자·장애인석 측면 비상인터폰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한다.
-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끈다.
- 출입문이 닫혔을 때는 출입문 쪽 의자 옆 아래쪽에 있는 두껍을 열고 비상코크를 잡아당겨 공기를 뺀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연다.
- 정전시에는 유도등을 따라(어두운 경우 빛이 보이는 쪽으로) 출구로 나간다.